

광화문 집회 참석자 능장조사·거짓진술에 확진자 쏟아졌다

광주·전남 코로나19 재확산 왜?

유형업소 출입·동선 숨기기

느슨해진 방역의식도 한몫

방역당국 어설픈 대처도 눈총

전남 1주일 48명 폭발적 확산

다단계·비트코인 종사자

무증상 다수 접촉 연쇄 감염

추측했던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생활 방역수칙 준수 정책에 적극 동참해온 광주·전남 사·도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지역민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밀폐한 유형업소 출입과 광화문 집회 참석 등 갖은 일탈 행동을 하고, 동선 숨기기, 거짓 진술 반복 등 방역시스템을 붕괴하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감도 고조되고 있다.

방역행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광주시 등 방역기관의 어설픈 행정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광주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태운 전세버스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방치됐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유형업소에 방문했다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광주시장과 교육감 등은 주요 인사들은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태에도, 각종 행사에 참가했다가 감염 검사까지 받는 일도 빚어졌다. 지역 사회 곳곳의 무더진 방역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형업소 출입하고, 동선 숨기고=이미 8·15 광화문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한 지난 20일 광주시 방역 관련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모습

이었다.

이미 정의당 전남도당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에서도 전세버스 8대(광주 1대, 전남 7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증언을 내놨지만, 광주시는 “제보수준으로,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날(20일) 오후 경찰과 관련 회의를 갖고 수사착수 여부 등을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전남도는 광화문 집회 참석 전세버스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전북도는 전세버스 협회에 승객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시는 21일해야 광화문 집회 인솔자인 남구 모 교회 담임목사에게 탑승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했으며, 결국 22일 하룻동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7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들 모두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확인됐다.

시는 뒤늦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당시 광주에서 최소 3대의 전세버스가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탑승자 중 90여명은 아직까지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과 장 교육감은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수행비서들이 센터내 확진자인 A씨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확산기에는 행사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쓰기과 유형업소 출입 자체 등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 유형거리인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는 23일 자정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성업중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주부 김민지(39·남구 봉선동)씨는 “아이와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전남 사들새 확진 30명, 왜 뚫렸나=이날 오후 6시 현재 전남 누적 확진자는 80명이다. 올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6개월간 확진자는 38명 발생하는데 그쳤으나 8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인 17일 진도 첫 확진자(전남 43번) 발생 이후 일요일인 23일까지 1주일간 48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폭발적이다.

전남에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확진 전까지 무증상을 보였던 환자가 있었고, 확진자 모자가 다단계 및 비트코인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접촉자를 낸 것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진도 첫 확진자(전남 43번), 순천 모자(전남 50, 51번), 광양 60대 여성(전남 53번) 등이다. 전남 43번 환자는 최근 제주도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김포 70번 확진자(서울 순복음교회 교인)와 접촉했고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 그러다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에 들어간 결과 이날까지 진도 4명, 무안 2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전남 50, 51번 확진자의 경우 다단계 및 비트코인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순천 등지에서 다수 접촉자를 만난 것이 감염 확산 배경이 됐다.

지난 20일 확진 이후 이들 모자와 관련한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확진자에게 감염된 전남 53번 확진자로 인한 감염자도 사들새 5명이나 됐다. 전남에서는 구례·고흥·강진·장성·해남·완도 6개 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23일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전대 오늘부터 권리당원·재외대의원 온라인 투표

후보들 SNS 선거전 집중

내일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

29일 전대 온라인 생중계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4일부터 권리당원과 재외국의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또 26·27일에는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고 28일에는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KBS 당 대표 후보자 전국 방송 토론회, 27일 MBC '100분 토론'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각 후보들은 SNS 선거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권 경쟁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극적인 이변이 펼쳐질 것인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후보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바탕으로 대세론의 깃발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후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경쟁인 '영호남 대결' 구도가 예상됐으나 이후 40대의 박주민 의원이 뛰어어들며 3파전으로 확산됐다.

특히,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전국을 돌며 '영남 주자'로서의 확장성과 '40대 젊은 피'를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전국적인 수혜와 코로나 19 재확산에 합동연설 등 공식 일정이 취소되면서 판을 뒤엎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전국적인 재난 상황으로 전대 판에서의 이슈가 부상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판세는 기존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 간접 접촉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돌입하면서 후보 간의 대결 구도도 실종된 상황이다.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막판 변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일찌감치 굳어진 판세에 재난까지 겹친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대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위가 누가 되느냐와 함께 1위와 2위의 득표차 등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선출될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현재의 대세론이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후 7개월의 임기를 소화하게 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상 차기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에 당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도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19 재확산, 최악의 민생 경제 등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과연 대표이자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서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선거인 1인당 2표제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후보 8명 가운데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한병도 후보 등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학부터 워터파크까지...광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설폐쇄 잇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확진자가 나온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대학, 다중이용 시설 등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호남 최대 마이스(MICE) 시설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직원이 확진되면서 시설이 전면 폐쇄됐다.

지난 17일 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민주 인권평화 포럼'에 참석했던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들도 전날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며, 다행히 모두 음성 판

정을 받았다. 센터 측은 박람회 등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22~23일 시설 전체를 폐쇄했다. 전남대도 교직원 확진으로 대학본부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대학 측은 본부 근무 근로학생, 18~21일 본부 방문자들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의 검체를 채취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시는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지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광양에서는 금호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근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와 센터가 일시 폐쇄됐다.

목포 해경 신안 흑산도 거점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 A씨도 확진돼 파출소가 폐쇄됐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물놀이 시설인 나주 중흥 골드스파도 워터파크 운영을 중단했다.

확진자 발생 후 시설을 전면 폐쇄한 중흥 골드스파는 리조트(객실)만 운영하고 물놀이 시설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핀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

